

# 여성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이         온         죽  
(서울대학교 사 회 학)

## .....(目 次).....

1. 접근의 촛점과 한계
2. 여성正體를 둘러싼 가치의식의 변천—개괄적 고찰
3. 경험적 자료의 종단적 비교
4. 여성의식변천의 사회적 배경
5. 여성가치의식의 전망과 방향

## 1. 접근의 촛점과 한계

주어진 주제에 따라 여성을 중심으로한 한국인의 가치의식의 변화를 경험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검토하려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제약은 자료에 있다. 첫째, 가치의식 내지 가치관이라는 개념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가치관(의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실증적 연구를 시작한 시기가 대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사정을 경험적 자료로 포착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가치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의식이든 마찬가지의 난점으로 지적되는 바이다.

둘째, 여성을 의식주체로 보았든지, 또는 의식의 대상으로 삼았든지 간에,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시된 것은 그보다도 더 뒤진 일이다. 대부분의 실증 연구는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흔히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여성무시의 편견을 당연시하거나 여성의 존재를 등한시 하여 진행해온 것이 일반적인 실태이다. 기껏해야, 철과 분석 과정에서 남녀의 비교를 하는 정도로서, 그런 경우에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고 일언을 하고는 아예 여성응답자를 따로 취급치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태도조사들이 대부분 가구주가 그 대상이 되기

도 한다. 다만, 최근에 와서 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작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정도이다.

세째, 같은 맥락에서, 여성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계통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다. 지난 40년에 걸쳐 여성을 주제로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에 쓴 수필이나 논설 등은 상당수 보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잡다하고, 특별히 여성의 의식, 그 중에서도 가치의식에 대하여 체계있게 분석·평가한 글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인상적인 피상적 관찰에 근거하거나, 추상적인 교훈조의 논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이 논문에서는 부득이 초점을 좁히면서, 특히 변화추세에 대하여서는 주로 자료 중심의 접근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제약을 안게 된다. 우선, 가치의식이라는 개념을 편의적인 기준에서 규정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흔히 가치관은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신념체계로서 사회성원들의 행동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홍승직, 1976). 또한 가치 또는 가치태도란 개인의 선호, 행동의 표준, 목표 등을 좌우해 주는 행동 성향의 상징적 요소를 뜻하며, 그것에 의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를 생각하는 내용을 일컬어 가치의식이라고도 한다.(Williams, 1970; 김경동, 1979). 그러므로 가치의식의 대상범위가 이론상 무한정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본고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 다룬다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므로 여성에 깊이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한 가치의식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여성에 관한 가치의식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식과 여성 스스로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그 주체도 여성에 한정시키는 접근을 주로 취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남녀의 비교라든가,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갖는 견해도 곁들이게 될 것이다. 결국 주로 여성과 관련있는 쟁점에 대한 여성의 가치의식이 이 글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방법적인 한계를 정해 놓았으나, 여성과 관련있는 주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 문제라는 주제를 거론하게 되면, 역시 여성의 정체의식이 핵심이 된다. 대체로 여성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역할 문화로 인식되는데, 이들은 여성정체의식의 부분요소인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영혜, 1981; Holter, 1972; Andersen 1983)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 하며, 단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은 부득이 입수가능한 자료의 성격에 좌우되는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여성의 정체의식을 개념적 수준에서만 규정하자면 다양한 차원들을 담고 있겠으나, 역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지표에 국한시킬 것이다.

## 2. 여성 正體를 둘러싼 가치의식의 변천—개괄적 고찰

먼저 우리사회에서 여성 정체(identity)를 둘러싼 가치의식이 변천한 모습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근래의 의식조사 연구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전통적 요소도 몇 가지만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근대화되기 전의 한국사회,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 여성의 정체는 한 마디로 가족주의적 물개성의 가치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정요섭, 1981; 이효재, 김주숙, 1978). 사회의 일반적 가치체계 속에서 여성이 개별적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에 종속하되, 그것도 가족 또는 친족의 맥락 속에 가부장과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그 종속적 물개성이 드러났고, 또 그 방향으로 장려되어 사회화되어왔다.

이러한 가치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두고 보면, 대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집합체위주의 가족주의로부터 여성이 하나의 인격적 주체 내지 개체로서의 평등과 개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도 변동의 방향이 그려해 왔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대체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하는 개화와 초기근대화의 과정에서 서양과의 문화접변(acculturation)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면서 여성정체에 대한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자극제가 된 것은 서양 개신교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실시한 교육사업이었다(이현희, 1978; 박용옥, 1979). 그러나, 그 영향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일부 인구에게만 한정되었고, 전통적인 가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뒤 일제 식민지시대에도 일본을 통한 간접적 문화접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역시 서양적인 민주화의 요소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론바

新女性과 같은 새로운 정체의식의 모색을 추구하는 여성상이 대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전체의 구조적 여건이나 가치체계로 볼 때, 이 시기 또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때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요섭, 1982; 이현희, 1978).

결국,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는 1945년의 해방에서 비롯된다고 봐야겠고, 여성의 정체를 둘러싼 가치의식에 있어서도 이 시기를 주요한 전환점으로 간주한다. 이 때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문화접면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미국이 거의 일방적으로 남한에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한글을 매체로 하는 보통교육의 보편화와 의무화는 여성인구에게도 꼭 같은 교육과정에 노출되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도 평등한 정치참여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과연 가치의식의 수준에서는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보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식의 변천이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해 오고 있는지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대단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남자와의 상대적 지위가 가족과 사회 일반에서 대등화(엄격한 평등화로 보기는 어렵고)로 가고 있으며, 여성의 성별 역할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에의 철저한 분업유형에서 탈피해 가고 있다(李溫竹, 1977)는 가정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정체 가치의식도 변할 것은 물론이고, 여성 자신의 정체에 관한 가치의식 또한 변천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해방후 6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에, 이와 같은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 몇 가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은 객관성을 띤 경험적 자료라기보다 당시 여성관계 대중잡지에서 저명인사들이 쓴 글속에 담긴 그들의 관찰보고 또는 의견진술이라든가,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고작이다. 60년대까지만해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법으로써 의식과 가치태도를 연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잡지 기사의 내용 자체도 다분히 추상적이거나 교훈적인 것들이 지배적이어서, 당시의 사정을 간접적으로 나마 보여주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와같은 제약을 감안하고 단편적인 보기들만 제시하면서 변화의 성격을 추리해 보기로 한다.

1950년대에 간행된 여성잡지 한 가지를 표본으로 살펴 보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엿보인다. 1) 다른 여자와 수년간 동거생활을 하는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와주기만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겠다는 여성의 사례보고가 있다. 이 여성의 상담에 응하는 필자는 그녀에게 이혼할 것을 권유해야겠다고 한다.<sup>[註1]</sup> 2) 여성의 정조에 관련 아직도 재혼녀를 경멸하는 풍조가 있다는 지적이 보인다.<sup>[註2]</sup> 3) 여자대학생들의 풍기문란, 맨스 홀 출입 등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회의 눈초리에 대한 여대생들의 언급이 있다. 4) 전쟁 미망인, 離農 청소년들로 말미암아 식모적이 인기라는 보도 속에, 주부들이 특히 교육받은 중산층에서, 식모살이(가사노동)를 본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자료1, 1955).

1956년 자료(자료2, 1956)에서는 1) 혼전성교는 금단임을 강조하는 남자의 주장이 있고<sup>[註3]</sup> 2) 여성인 필자가 부정으로 별거 중인 남편을 부덕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충고를 하는 글과 동시에 3) 여성도 자기 적성에 따라 직업생활을 추구할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 있다.

1959년(자료3, 1959) 자료에서 여성의 직업생활을 다루는 두 남성의 글을 예로 들면, 1) 우리사회가 처한 과도기에 적성을 살려 여성도 직업전선에 진출하여 남성과 협력하여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성은 특히 가정과 직장을 원활히 연결시키고 두 가지 임무수행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2) 시대가 변하므로 여성의 직장진출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도 기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직장여성, 일하는 여성이란 일의 성격과 여성의 능력이 잘 부합하는 경리사무 같은 것이라고 못박는다.

이상의 매우 지엽적인 자료들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은, 첫째, 50년 중반

(1) 1983.9 경향신문에서 전국 중년 여성(40代, 30代)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중년여성 세대의식조사'에 의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이 사귀면? 이런 질문에 대해:( )안은 30代 이혼하겠다 9.2(19.5)

별거하며 생각 13.5(18.0)

관계를 끊도록 설득 50(47.2)

모른체 한다 9.1(3.8)

이해해 주겠다. 8.6(4.4)

잘모르겠다. 무응답 9.6(7.1)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단호히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40代가 10%도 안되는 반면 30代는 그두배에 가깝다. 이혼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단연 '자녀때문'은 40代, 30代의 80.4(70.6)%가 각각 지적하고 있다.

(2) 1984년 중앙일보의 국민생활의식조사에 의하면 39.1%만이 혼전성교를 절대반대하고 있다.

(3) 1959년 교황경교수외의 농촌조사에 의하면 농촌남자들의 79%, 여자의 84.1%가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반대하고, 찬성은 각각 14.6%, 12.9%에 불과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남자가 83.3% 여자가 83.5% 찬성하고 있다.

이후에도 여성의 정조, 풍기, 혼전성교, 재혼 등의 행동유형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 방면에는 아직도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를 허용하지 못하는 폐쇄성이 짙다. 둘째, 부정한 남편이지만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굴종과 인내로 용납하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對남성 의존과 전통적 인정의 가치가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다. 세째, 여성의 직업생활을 사회의 흐름에 따라 표면상 권장하면서도, 여성의 상대적 위치와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60년대에 접어 들면 간헐적이긴 하나 간단한 표본조사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 70, 80년대로 올수록 그런 여론조사 활동은 점차 빈번해지고 다양화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여성에 관한 여성들의 의식 조사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비록 내용이 유관할지라도 개개의 조사는 그나름의 관심사가 꼭 같지 않고, 표본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며, 또 거기에 접근하는 연장인 질문서 형식등이 조사마다 일관성이 없어서, 직접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참고 삼아 몇 가지 자료를 요약·소개하면서 그 함의를 따져 보기로 한다. 여기서, 자료의 제약을 받아 들이고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1) 자녀교육만에 나타난 남아선호 가치, 2) 여성의 취업과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태도, 3) 이혼을 둘러싼 가치의식, 4)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판단등에 불과하다. 가족에 관련된 여성 의식이나 가치에 관한 자료는 상당수가 가족사회학 분야에서 생산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밖에는 아직도 여성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잔존하는 내용을 다른 조사결과 몇 가지를 보충자료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겠다.

### 3. 경험적 자료의 종단적 비교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 실증적 연구방법이 도입되어 경험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 표본에 대하여 같은 내용이든 아니든 종단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반복 조사하는 이른바 패널연구를 한 보기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 와서 일부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부분적으로 같은 문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사대상 표본은 같지 않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개·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다른 조사표를 써서 연구한 결과들임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함을 다시금 밝혀둔다. 그나마도

시간 차원을 종단적으로 가로 질려 비교할 만한 공통된 자료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 (1) 자녀교육관에 나타난 남녀차별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나 국민의 교육열은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렬한 것임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도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물론이요 이를 다루는 각종 조사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남녀의 차별대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가치의식을 알아 내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열망을 나타낸 자료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나 비교할 만한 것을 간추려에 요약하였다.

〈表 1〉 자녀를 위한 교육 열망에 나타난 남녀차별

연 도	1959	1977	1980	1980	1981	1982	1982	1983
자료 출처	고황경 외 사회지표 서 울 대 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사회 한국	
	사회과학						지표 일보	
	연구소							
표 본	농촌(남자)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도시) (농촌)	전국	전국
대학교이상		56.3					88.3	
아 들								
딸		33.6					63.3	
아 들	88.5		84.3	89.3	90.0	93.9 (95.8) (85.2)		94
딸	41.1		71.3	67.5	73.4	77.5 (81.8) (60.4)		76
(대학원이상)	22.4		29.5	42.6	46.6			
아 딸								
딸	9.4		12.3	15.1	21.1			

종단적 비교를 위해 자료의 종류에 따라 따로 숫자를 정리하였다. 먼저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기획원의 사회지표 자료에 의하면, 1977년과 1982년 5년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77년에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비율이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던 것이 5년 후인 82년에는 거의 두배가 되는 6할이 넘는다.

그 밖에 80년대에 와서 3년간 매년 같은 문항을 조사한 중앙일보의 자료들에서도 해마다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에 보내겠다는 응답자

의 비율이나, 대학원·이상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아들, 딸 모두 늘어나고 있으나, 특히 아들의 경우 비율의 차이는 2년 동안 4.6%정도인 데 비해 딸의 경우는 10%가 증가하고 있다. 비록 짧은 기간에 대한 간단한 자료지만 일관성있는 변화가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비중이 크게 부각되는 사회에서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교육을 통해 삶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남녀 차별 가치가 조금씩이나마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엿보인다.

## (2) 여성의 직업·직장진출에 대한 의식

여성의 正體가 전통적 유형과 가장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대조되는 것은 여성이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하고, 결혼하면 가정에 완전히 충실히 것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제한하며, 그 속에서 정체의식을 규정받는 대부분적 가족주의가 전통적 유형이라면, 여성도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가정 밖으로 나아가 취업도 하고 사회적 자아정체를 찾는 것은 그 유형에서 일탈하는 것이라하겠다.

여성운동, 여성해방과 같은 움직임에서 가장 중시하는 요소도 바로 여성의 취업과 관련 있는 것이다. 취업기회, 직업종류, 직장에서의 대우, 승진기회, 노무관리, 임금 등이 이에 해당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이온죽, 1985; 조형, 1980). 그러므로, 여성의 정체에 관한 가치의식을 다루자면 이 주제는 필수적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방면의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대체로 종단비교가 가능한 것들만 모았다(표2).

이 주제에 소개한 자료 역시 표본의 성격이 다르고 질문서 문항이 다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비교해 보았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직장생활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적극성을 띠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1983년 경향신문이 실시한 중년여성세대의

〈表 2〉 여성의 사회(직장) 진출에 대한 태도

연 도	1965		1966		1971		1979
자료 출처	고영복		홍승직	여성중앙		이온죽	
표 본	(농촌)	(도시)	(교수 언론인)	(종업원)	(경영자)	(여성 근로자)	
사회진출(취업)찬성	25.0	61.0	57.7	84.2	85.5	79.9	
결혼 전에만 허용			35.0				
가정일에 전념 (취업 반대)	75.0	39.0	6.5	15.8	14.5	8.7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3	1984	
자료 출처	중앙일보	R	R	R	경향신문	조선일보	
표 본	전국표본	R	R	R	(중년 여성)	전국표본	
사회진출(취업)찬성	61.3	63.4	69.1	72.7	93.9	43.2	
결혼 전에만 허용						35.4	
가정일에 전념 (취업 반대)	29.8	35.8	28.9*	25.0	6.1	18.7	

\* 남자 응답자의 31.9%, 여자 응답자의 17.3%이 가정일에 전념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性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의식조사에서는 93.9%가 찬성하고 있다. 1984년 사회지표를 보면 미혼여성중에 9%만이 가정에 전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40.1%가 가정과 관계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1985). 그밖의 조사에서도 결혼하기 전까지라든가 자녀가 성장한 후등 결혼과 자녀등의 조건이 붙게 되면 지지율이 더 늘어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견해는 여성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는 상당히 탈피되어 있고 개방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갖고 있는 직장여성을 위한 뒷받침이 사회구조나 제도면에서 부족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직장여성에 대한 가치의식 자체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취업여성이라 하여도 반드시 가정을 떠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어려운 상극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정생활에 일정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족과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이와 관련이 있지만, 이 주제는 주로 가족 분야에서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3) 이혼에 대한 가치태도

이혼이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전통적 유형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더구나 가족주의가 지배적인 맥락에서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가족분야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성의 정체의식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3은 입수가능한 자료들을 요약한 것이다.

〈表3〉 이혼에 대한 의식

연 도	1959		1962		1980		1980	1981	1982	1983	1984
	자료 출처	고황경 외	최재석	중앙일보	R	R	R	R	R	R	R
표 본	농 촌 (여자)	(남자)	(농촌) (도시)	주 부	전국						
찬 성			5.4	21.4	62.8	17.6	50.1	70.9	55.7	65.4	
조건부(자녀유무)찬성	44.7	36.8									
조건부(자녀유무)반대	90.0	90.2					23.6				
반 대	53.1	56.6	67.9	35.2	36.9	26.5	21.3	17.0	19.7	19.2	
생각해 본 일 없다						31.4	27.0	12.1	24.6	15.4	

가족에 관한 연구는 1960~70년대에 상당히 있었으나, 이혼문제를 특별히 다룬 보기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자료는 남편의 학대가 심할 때 이혼여부를 물은 것이고, 70년대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다.

비교해보면 대체로 거의 분명한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50년대 말 농촌에서는 이혼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과반수를 넘었고, 자녀가 있을 경우는 9할이 반대하고 있다.(자녀가 없는 경우는 거의 반수가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60년대에도 학대에 대하여 농촌에서는 7할 가까이 반대를 하고 있다. 80년대에 보면, 반대율은 37%에서 19%로까지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보인다.<sup>##</sup> 한가지 종래 우리의 인식을 뒤엎을 사실은 5,60년대에는 농촌사람들이 도시인들보다 이혼문

(4) 중앙일보의 전국표본 국민의식조사에서 보면 “이유있으면 할 수 있다는” 문항에 1981년에는 남자49.9%, 여자 52%, 1982년에는 남자70.8%, 여자 72.1%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에 대해 더 보수적이었으나 80년대에는 도시인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TV매체가 농촌에 보급되면서 결과된 현상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sup>5)</sup> 82~84년에는 대체로 6~7할 가까운 국민의식 전국응답자가 이혼에 대한 찬성의사를 일단 표명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개방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혼前 성관계에 대한 의식

어떤 의미에서 이혼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질곡으로부터 여성이 선택에 의하여 자유로워지는 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의식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혼인전에 性的인 남녀관계를 갖는 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조관념이란 대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여성의 혼외 성관계의 배제는 물론, 재혼의 불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남성위주의 이념이었다. 그러므로, 혼전 성행위를 허용해도 좋다는 생각은 전통적 고정관념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서, 여성이 만일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는 새로운 성별 정체의식의 한 측면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윤리적인 쟁점이 개입되는 문제이고, 사회적 가치지향의 향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쨌든, 단편적이나마 이 방면의 자료가 종단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있어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그 결과를 〈표4〉에 정리하였다.

1960년대 초의 자료에서 보면, 도시인 농촌인간 응답자의 9할 이상이 性의 순결을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0년대 후반의 대학생 조사에서는 반대비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조건부(사랑하는 사이, 또는 약혼한 사이)로 허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대학생이라는 젊고 학력이 높은 층도 4분의 3이상이 혼전 성관계를 반대한다. 이런 비율은 대개 70년대 조사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80년대에 들어선 뒤로는 추세가 자못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1980년 중앙일보의 전국 주부의식조사에 따르면, '절대 반대' 문항에 답한 도시여성은 8.4%인데 비해 농촌주부는 1.7%밖에 되지 않는다.

〈表 4〉 결혼 전 성관계

연 도	1962	1968	1973	1978	1980	1982
자료 출처	최재석	전용신	문공부	강현숙	중앙일보	중앙일보
표 본	(농촌) (도시)	대학생	전 국	여대생	주 부	전 국
허용내지 공감	0.7	—	23.2	30	26.1	
사랑하는 사이라면 허용					33.8	(35) (28.8)
약혼한 사이라면 허용					28.9 (25.8) (33.6) (31.4) (19.4)	
중 간	7.8	4.9	24.4			
반 대	90.1	93.2	52.4	76.7	73.2	33.8 (37.8) (27.7) (30.7) (45.5)
연 도	1983	1983		1984	1984	1985
자료 출처	중앙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서울대
표 본	전 국	(40대여성) (30대여성)		전 국	전 국	서울대생
허용내지 공감		7.5	10.0		16	
사랑하는 사이라면 허용	29.3			33.2	49	(58.2) (22.7)
약혼한 사이라면 허용	24.7			17.9		
중 간		30.8	35.6		42.7	
반 대	37	51.3	43.2	39.1	37.8	44.2 (72)

자료가 비교적 미비하여 혼전 성관계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만을 주로 제시하였지만, 그 비율이 이제는 집단에 따라 절반을 넘지 않거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리고, 여성들 중에도 30대보다 40대 연령층이 더 보수적임이 드러났다. 이혼의 경우처럼 농촌이 도시보다 80년대에는 더 개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에서, 성문제에 있어서도, 앞의 이혼에 대한 의식과 비슷하게 상당히 개방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게 된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행위에 관한 가치기준이 그만큼 완화되어간다는 뜻도 되고, 성윤리가 해이해지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 (5) 잔존하는 전통의식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 정체가치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여성의 정체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의식에는 비교적 변함없이 전통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도 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종단비교가 가능한 것이 드물기 때문에 한정된 보기 몇 가지만 제시한다.

〈表 5〉 남녀 차별 찬존여부

연 도	1969	1980	1983	1985
출처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대학신문
표본	은행 여직원 여사무원	전국주부	전국 중년여성	서울대생 남녀
남녀차별(불평등)	46.3	75.1		76 (94)
엄연히 존재				
차별없다(평등)		24.9	7.8	(14.1) (1)

표5를 보면 60년대의 여자은행원, 여사무원 가운데 남녀차별을 의식한 이는 절반도 안 되는데 80년대에 주부나 여대생들의 7할 이상 내지 9할 이상이 차별을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 대학생들 간에도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자보다 남자가 낫다.

60년대의 사회평론에서도 여성의 자의식이 결여함을 신랄히 비판하는 논조가 가끔 눈에 뜨인다(김경동, 1969). 70년대 이후로는 여성의 자의식에 대한 계몽과 여성운동이 비교적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풀어보면, 하나는 여성자신의 의식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변화의 양상이고 다른 면으로는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은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하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요소의 찬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에는 크게 의식치 않았다가 근래에 와서 뚜렷이 감지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종단적 비교 자료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의식은 몇 가지 다른 보기에서도 찾아진다. 자녀교육의 방침에 대해서<sup>(6)</sup>(한국갤럽, 1981) 97.5%의 응답자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야 한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는 영국 응답자의 62.3%와 큰 차이가 난다. 남녀의 차별은 제도와 구조로서도 이루어

(6) 1981년 0~15才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등 6개국 비교조사를 하였다 (1982. 5. 7. 조선일보에 게재됨).

지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회화과정이라 할 때, 이와 같은 전통적 의식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할 때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면 남녀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자응답자의 67%가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가 되고 싶다는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중앙일보, 1982). 남자의 10.8%만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아직도 여성의 성별 자아정체는 전통적 남녀차등의 태두리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비록 한정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다시 요약해 보면, 50년대의 간접자료에서만 해도 꽤 전통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면서 변화의 징이 보이던 것이, 80년대에 이르면 상당한 변화가 드러난다는 점이 눈에 띠인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열망도가 자녀의 性과 관계 없이 높지만 그 증가폭이 딸의 경우 훨씬 많아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선호하는 가치는 시간과 함께 누그러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직업활동을 보는 눈도, 50년대의 유보적인 데서, 80년대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뚜렷히 변해 왔다. 이혼과 같이 어려운 가족해체의 행위는 50년대에는 아무리 남편이 부정해도 참고 기다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이혼 자체를 타부시 하는 의식은 많이 수그러졌다. 그리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50년에서 엿볼 수 있었던 철저한 정조관념이 이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에 드러나는 남녀차별·의식이라든가 자녀양육에서 성별 차등 사회화를 고집한다든가 또는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태도 등에서 전통적 요소가 아직 잔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의식의 자유화나 민주화와 공존하는 구조적, 제도적 여건의 반영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변화를 자극하였는지를 되새겨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서 구조나 제도의 제약도 성찰해 보고자한다.

#### 4. 여성의식 변천의 사회적 배경

먼저, 지난 40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여성 가치의식 또는 여성에 대한 국민의 가치의식 변화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진행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해방 40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심한 변화를 겪은 시기임을 생각하면, 그 요인을 명확히 가려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은 중심으로 보아 관련이 높은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광복 그 자체는 36년이란 우리역사의 단절기를 종식시키고 자주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로서 그 의미가 있다. 식민지상태로부터 해방이라는 현상은 그 밖의 많은 질곡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연상케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여성의 지위나 정체의식도 이에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해방과 더불어 서양과의 직접적 문화접면을 경험하게 되고(이 때의 서양은 주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당시 실정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입장에 있었고 우리는 편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말하자면, 〈기울어진 문화접면〉(tilted acculturation)현상으로 풀이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여지가 적고 적응에 긴장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김경동, 1980). 이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정체의식에 대한 서구이념에 접하게 되었다.

세째,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과 더불어, 우리말을 되찾았고, 한글로 교육하는 보통교육의 보편화, 의무화가 실현되면서 여성도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네째, 해방 그리고 전국과 더불어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계가 성립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와 평등한 지위가 주어졌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적 이념의 확산도 교육과 정치과정에서 일어났다.

다섯째, 한국동란은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여성 문제와 직결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미군의 대량 투입과 그와 함께 물어온 미국의 대중문화가 해방 직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범위로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는 성개방, 가족주의의 붕괴, 여성의 사회진출 등 새로운 가치에의 노출이 포함된다. 그 뿐 아니라, 6·25는 남성의 징병과 전사, 부상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였다. 이 때부터 여성의 직업전선진출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한 주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戰時의 사회혼란은 갖가지 풍기문란을 관용하는 일종의 아노미를 초래하게 되었다. 휴전후 〈자유부인〉과 같은 문제가 부쩍 눈에 뜨이기 시작한 것도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다.

여섯째, 60년대에는 4·19, 5·16등 잇따른 정변으로 새로운 가치의식의 변화를 자극받게 되었지만, 역시 가장 큰 충격은 60년대초부터 시작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다. 이 때는 여성의 취업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공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왔으므로 생활양식과 가치의식에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일곱째, 그러나, 경제성장이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의식과 생활양식에 현저하게 그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역시 70년대 중반부터가 아닌가한다. 이 시기는 대체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일어나고 노동력을 중심으로 본 산업구조의 전환점(배무기, 1984)을 경험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1975년은 UN에서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였다.

경제의 전환기는 두가지 측면에서 여성문제와 관련지워질 수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능적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가 가능하다. 다음은, 경제성장의 열매가 그동안 비교적 넓게 보급되어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이 되기에 이르렀다. 농촌도 70년대 초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과 대중매체의 보급에 힘입어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생활양식의 도시화의 더불어 여성의식의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더구나, 여러가지 기술의 발달로 가사노동이 편리해지고 산아제한등으로 육아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져서, 이를 계기로 사회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이 커졌다.

여덟째, 70년대에 와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의 촉진제는 TV가 대표하는 전파매체의 신속한 확산이다. 신문과 라디오가 해방이후 상당히 발전해 왔고, 또 그러한 대중매체가 가치의식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파고 든 것은 TV라는 전파매체이며, 이것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크게 좁혀 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의식, 여성에 대한 의식에도 큰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70년대 중반에 <여성의 해>를 가짐으로써 우리사회에 여성자신은 물론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인식을 심어 주는 일에 주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 여성개발연구원이 발족하여 공식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생기게 된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 밖에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이나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 보았다. 엄격히 따지려면, 이런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제로써 여성의 정체의식과 여성에 대한 가치의식을 변용시키는가를 분석적으로 밝혀야겠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이나 경험적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술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 5. 여성가치의식의 전망과 방향

지난 40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것에 연연한 것 같았지만, 부득이 구할 수 있는 자료에 의존하는 제한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변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감안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형성키 위한 바람직한 의식의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비록 부족한 자료지만, 여성의식의 몇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와 개방화에로의 변화추세를 읽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이 것들지 않은 개방화가 전개할 소지도 엿볼 수 있었고, 그것은 그 사이 우리사회가 겪은 격변의 와중에서 생겨난 아노미 현상의 한 단면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자율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회제도와 구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제까지의 의식의 변화에 비해, 사회의 구조적 여건이나 제도적 마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쳐지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체현상이 치맛바람, 복부인과 같은 유행어의 진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균형이 있는 한, 의식의 개방화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회에 긴장과 혼란을 심화시킬 개연성만 높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날의 여성의 정체의식을 둘러싼 바람직스런 변화를 생각하자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주요 변동의 추세와 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게 된다.

요즈음 우리사회를 포함하여 공업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혁의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발달과 거기서 조장하는 이른바 정보화 사회의 형성이다. Toffler같은 미래학자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미래지향의 사회에서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하여, 인간

의 노동과정과 가족생활, 직업구조와 사회조직의 원리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정체를 둘러싼 새로운 가치의식의 정립이 요구될 것이다.

제1의 물결인 농경사회는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하였고, 제2의 물결의 산업사회 또한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소비자의 위치에 안주하게 하였다.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자동화와 종합통신체계가 가능해지는 제3의 물결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 육아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과 노동과정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정 밖의 일도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든가, 남녀 모두 직업적인 일과 개인이나 가족의 여가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자율조절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고 있다. 결국 남녀의 성별 분업이 불필요해지는 직업구조와 노동과정과 생활양식이 정립된다면, 여성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 및 취미에 맞는 직업활동을 종래처럼 가정과 직장사이의 긴장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혁신에 미쳐 따르지 못하는 의식과 제도와 구조의 조절, 그리고 변혁을 미리 촉진시키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여성의식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닥친 外的 여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적인 소산이어서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다 함께 지니면서 아노미 현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갈등현상을 초래한 감이 없지 않다. 지금처럼 미래사회의 外的 변화를 얼마만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회성원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 방향으로 의도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난 40년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따위의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겠고, 더불어 사회성원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져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바탕이 되는 원리를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여성과 관련지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주의적 접근 내지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기질, 특성, 성격, 능력, 역할, 이 모든 것이 性에 따라 고정되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人間 그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요, 기준이며 주체라는

것이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아닌 자기다움을 키워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 정체의식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김경동, 1978). John S. Mill이 갈파하기를, 性에 의한 지배체제는 여러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권력남용, 생활양태에 있어 자기중심벽의 원형을 형성한다. 性別에 의한 지배복종관계는 위계계층형태로만의 질서를 잡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모든 억압형태의 심리적 기반이 된다.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이기적 성벽, 자기숭배, 우월의식 등은 현존하는 남녀양성의 관계에서 그 근원이 배태되고 육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모든 사회제도, 구조들이 그 사회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사회운용에 있어서 구조적 유연성이 가치있는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원들의 개성이 각각 다르며, 그들의 창의력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여기에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만들어진 제도와 구조들이 역으로 그 주체인 인간을 노예화하면서 인간을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당시 성원들로 하여금 탄력성있는 적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김경동, 1979). 그러자면, 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이 最善(Summum Bonum)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理性과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의 일원인 여성도 집이라는 집합체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의 개발과 피나는 노력을 통한 자기훈련으로 닦여진 理性의 갖춤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끊임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에, 여성에게도 일생을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필요하다(이온죽, 1985). 이렇게 잘고 닦은 여성의식은 보다 신축성있게 변화에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社会의 남성의 동료, 동반자가 지닐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의식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ndersen, Margaret L.,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and Feminist Perspectives* (New York:Macmillan Publishing Co.Inc.), 1983
- Goode, William, World Revolution & Family Patterns* (New York:Free Press) 1963
- Holter, Harriet. "Sex roles and social change." *Toward a Sociology of Women*(Lexington, MA:Xerox College Publishing). 1972
- Mill, Fohn S., *the Subjection of Women*, reprinted in Three Essays by J.S. Mill. World Classic Series(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Williams, R.M. Jr., *American Society*, 3rd ed(New York:Knopf), 1970
- 자료 1, 1955, 〈여성계〉 (1)(3)
- 자료 1, 1956, 〈여성계〉 (5)
- 자료 1, 1959, 〈여성계〉 (4)
- 경제기획원
- 1977, 1982, 1984, 한국의 사회지표
- 경향신문
- 1983 "전국중년여성세대 의식조사," 10. 6일자
- 고영복
- 1967 "한국가족문화의 변용과정," 아세아 연구, 10(2),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 고황경外
- 1963 한국농촌가족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경동
- 1969년 "현대여성의 의식부재에 대하여," 여성동아 6월호
- 1978 인간주의 사회학, 민음사
- 1979 발전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 1980 현대 사회와 인간의 미래, 평민사
- 1982 한국사회 60년대, 70년대, 범문사,  
문화공보부
- 1977 국민의 여론조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80 한국교육의 진단과 처방(연구보고서)
- 서울대학교 학보사
1985. 10. 4일자 대학신문
- 여성중앙
1972. 1월호 "여성과 경제활동"

이온죽

- 1977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고찰—근대화의 일면”, 한국사회학, 11집  
1982 한국여성근로자의 혼인관과 직업관, 아세아여성연구, 제21집, 숙  
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5 “여성의 사회 참여와 사회발전”, 현대사회, 18, 현대사회연구소 여름호

이현희

- 1978 한국근대여성 개화사, 이우출판사

이효재, 김주숙

- 1978 한국여성의 지위, 이대여성자원개발연구소, 이대출판부

전용신

- 1969 “한국대학생의 정치적 태도”, 고대논문집, 15집

정요섭

- 1981 “한국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여성학, 숙대출판부

- 1982 한국여성운동사, 일조각

조선일보

1984. 8. 4일자 “광복40년, 분단40년…한국인의 의식변화,”

1985. 1. 26일자

조형

- 1980 “여성과 사회발전—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대 아세아문  
제연구소

중앙일보

- 1980~1984 9. 22일자 전국생활의식조사

1981. 1. 1일자 전국주부의식조사, 최재석

-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1981 한국갤럽, 어린이와 가정생활

1983. 6. 9일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1985 한국일보, “한국인의 콘센서스 첫조  
사,”

- 1983 “30代 한국인의 생각,” 1985. 6. 11일자 현대사회연구소, 국민의식  
에관한 연구문헌 조사분석

홍승직

- 1967 “해방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아세아연구, 10(2),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